

가족 역사 사업, 그 최전선에서 뛰는 사람들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100여명 이상이 '가족 역사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100여명 이상이 현재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현재 5개 스테이크의 총 17명의 형제 자매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할애해 '가족 역사 봉사 선교사'로서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다. 그 17명 중 8명이라는 가장 많은 봉사 선교사를 둔 광주 스테이크는 현재 가족 역사 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곳 중 하나이다.

평일이었던 지난 4월 28일 오전에도 광주 스테이크의 가족 역사 사업은 쉴 새 없이 진행됐다. 광주 스테이크 가족 역사 센터 책임자인 이병환 형제와 첨단 와드에 함께 모인 네 명의 자매들은 족보를 읽는 법, 가족 역사 프로그램 PAF(Personal Ancestral File)를 이용하는 법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 아이를 데리고 나온 박미영 자매는 “봉사하는 시간 동안 피곤하지도 않고, 시간이 빨리 갑니다.”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박미영 자매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던 잘나 이병환 형제의 칭찬이 이어졌다. “박미영 자매는 어린 자녀가 있는데도 제일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 말에 또 여기저기서 “맞아. 맞아.”하고 추임새가 들어갔다.



가족 역사 사업 중인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 좌측부터: 범혜정 자매, 김명례 자매, 이병환 형제

광주 스테이크에 처음으로 가족 역사 사업의 불씨를 지핀 사람은 다름 아닌 이병환 형제였다. 결혼과 동시에 어렵사리 족보를 구해서 가족 역사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병환 형제는 그 계기에 대해 “결혼하게 해 주신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었다고 말하며 씩씩스러운 듯이 웃었다. 그렇게 시작한 가족 역사 사업이 해를 거듭하면서 이병환 형제의 일생을 함께하는 봉사가 되었다. 이병환 형제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가족 역사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에게는 족보 읽는 법과, 성인 회원들에게는 PAF 입력 방법을 가르쳤다. 광주 스테이크의 가족 역사 센터 책임자로 부름 받은 뒤에는 더욱 더 열성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왔으며, 변화의 바람은 서서히

불었다. 이 형제에게서 도움을 받은 회원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다. 정유진 자매가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2007년에 이병환 형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가족 역사 사업을 하게 된 정 자매는 가족 역사 사업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의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봉사하고자” 결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모인 8명의 가족 역사 봉사 선교사

는 족보를 능숙하게 해독할 수 있는 사람과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 짝을 이뤄 각 와드 별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아직 부름을 받지 않은 선교사로 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양영나 자매는 “결혼하기 전부터 가족 역사 사업을 끝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영의 세계에 계신 조상들이 축복을 해 주는 듯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 역사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봉사 선교사이자 이병환 형제의 아내인 김미숙 자매가 우문에 현답을 들려주었다. “휘장 저편 사람들의 구원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쇠로 구원의 문을 열어 준다면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이병환 형제는 “때때로 영의 세계에 있는 수만 명의 영혼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 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광주 스테이크는 앞으

로 매주 첫 째 주 안식일을 '가족 역사의 날'로 정해서 가족 역사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 선교사들이 스테이크 내 가족 역사 센터에 모여 모임을 갖고, 광주 스테이크 회원을 대상으로 족보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신권 지도자들의 말씀과 봉사 선교사들의 모범과 희생을 통해서 가족 역사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이병환 형제는 “모든 회원들이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 4월 19일에는 한국 지역의 가족 역사 봉사 선교사들이 '한국 가족 역사부'에 모였다. 이 날 모임에서 지역 회장단의 가족 역사 사업을 돕는 '가족 역사 지역 고문' 부름을 새롭게 받은 오희근 형제는 “지금 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고 전하며 봉사 선교사들을 격려했다. 가족 역사부에 모인 봉사 선교사들은 현재 교회 본부에서 8개의 언어로 준비 중인 새로운 가족 역사 인터넷 사이트 “새로운 Family Search”(new.familysearch.org)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봉사의 의지를 다졌다. 전 세계의 일부 이미 시작한 곳을 포함해 앞으로 모든 교회 회원들이 사용하게 될 “새로운 Family Search”는 회원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자신의 조상을 찾고, 성전의식을 위한 이름 제출하고, 정확한 기록을 위해 온라인에서 다른 회원들과 협력하며, 성전 의식의 중복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과거 '중이 가족 기록서'에서 'PAF'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Family Search'로 가족 역사 사업 방법의 큰 변화, 즉 더 편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변화가 머지않아 소개될 것이다.

가족 역사부의 흥하식 형제는 변경된 용어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개인의 조상에 대해 탐구하는 이 일은 과거에 '계보 사업'이라 불렀지만, 이제 교회는 이 일을 통해 개인들과 가족들을 연결하는 것을 중점을 두기 위해 '가족 역사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이어링 회장의 “지금 이 조상을 찾기 위한 많은 자원들로 인해 축복 받은 세대”라는 말씀에 대해 “이 축복은 한국 성도들에게 더욱 해당됩니다. 잘 보존된 족보와 족보를 컴퓨터로 쉽게 볼 수 있는 CD족보, 인터넷 족보를 더욱더 많은 종친회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마다 인터넷과 컴퓨터 보급률도 높기에 '새로운 Family Search'가 시작되면 우리나라의 가족 역사 사업은 한 단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신권 지도자와 회원들의 가족 역사 사업에 관심과 봉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2006년 말에 한국에 조직된 '한국 가족 역사부'는 회원들의 가족 역사 사업을 돕기 위해 현재 콜센터(무료 전화: 003-

0813-1596, e-mail 문의: koreansupport@familysearch.org)를 교회 본부와 함께 운영 중이며, 여러 가족 역사 분야에서 봉사 선교사들과 함께 다양한 훈련(주말 청소년 교육, 족보 세미나 등)과 각 스테이크 및 지방부에 위치한 가족 역사 센터를 돕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오희근 형제나 가족 역사부 직원, 그리고 가족 역사 봉사 선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신권 지도자와 회원 개개인의 의지가 어우러질 때 가족 역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말한다. 즉, 성전에서 죽은 자를 구원하는 대리의식을 제공하기 위한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신권 지도자의 지도와 조상을 구원으로 이끌겠다는 회원들의 강한 의지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희근 형제는 “신권 지도자들이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면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땅의 지도자들이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간증을 토대로 회원들에게 성전 사업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 달라는 마지막 질문에 흥하식 형제가 보여 준 파우스트 회장의 다음 말씀은 '아비와 자녀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송고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였다. “조상을 하나씩 찾는 일은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또한 흥미롭고 보상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의 신분을 밝혀내는 출처에 다가설 때 영적인 인도를 느낍니다. ... 이 일이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인 까닭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그 일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 2003년 반 연차대회〉 ■



가족 역사 지역 고문인 오희근 형제와 가족 역사부 직원들. 좌측 앞 줄 부터: 오희근 형제, 박형준 형제, 흥하식 형제, 황재식 형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2008년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가 한국을 방문했다. 대전 스테이크 대회,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 청년 독신 특별 모임, 그리고 서울에서의 노년의 모임 등 한국의 성도들과 여러 모임을 함께 한 스코트 장로는 돌아가는 그날까지 한국에 대한 사랑을 감추지 않았다. 때로는 감동적으로,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던 스코트 장로의 발걸음을 따라가 본다.



환송 나온 초등학교 어린이에게서 꽃다발을 받는 스코트 장로

“느낌을 통해 배우십시오.” 4월 19일 대전 스테이크 대회 신권 역원 모임 및 토요 저녁 모임

4월 19일 오전 11시, 대전역에는 플래카드(placard)를 든 십여 명의 대전 스테이크 회원들과 꽃다발을 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나와 스코트 장로를 환영했다. 대전 스테이크 회원들의 열렬한 환대에 스코트 장로는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스코트 장로는 스테이크 대회 내내 처음 보였던 그 미소를 지으며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복음의 원리를 전했다. 그러한 여러 원리 중 4월 19일 신권 역원 모임에서 스코트 장로가 강조한 것은 ‘배움의 원리’였다. 스코트 장로는 참석한 신권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는 듣는 것과 보는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 배웁니다.”라고 말씀했다. 스코트 장로는 뒤이어 각각의 배움을 예로 들면서 느끼는 것을 통한 배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며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느낌을 통한 배움은 영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느낌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이어진 토요 저녁 모임에서도 풍성한 말씀의 향연은 계속됐다. 합창이 끝난 후 연단에 선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최윤환 장로는 각기 다른 음식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화음을

낸다고 말하며 “교회 회원들도 서로의 사랑이 어우러지는 화음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선 스코트 장로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곧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행복의 원리” 4월 20일 대전 스테이크 대회 일요 총회

스코트 장로는 합창단이 노래를 할 때면 앞의 자리에서 일어나 합창단을 향해 돌아섰다. 한국에서의 모든 모임동안 한결같은 반응을 보인 스코트 장로의 이러한 모습은 찬송을 선사하는 합창단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하는 것이었다. 덕분에 합창단이 노래를 하는 동안, 그리고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사랑의 따뜻한 감정이 내내 함께 했다.

사랑의 따뜻한 느낌이 가득했던 4월 20일 일요 총회에서 최윤환 장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느낀 것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신앙과 용기에 대해 가르쳤다. 또한 자신이 친구 세 명을 교회로 이끌었던 경험을 들려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구주이시다.”라는 간증을 전했다.

이날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선 스코트 장로는 “행복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코트 장로는 또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기도를 하고 생각한 다음 종이에다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종이에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적어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꼭 사용해야 할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남는 시간을 여러분이 적은 종이에 있는 우선순위에 할애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르십시오” 4월 20일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

스코트 장로는 대전 스테이크 대회가 끝난 후 쉴 새 없이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대전 KT 연수원에서 열린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과 특별 청년 독신 성인 모임 때문이었다. 두 모임 모두 전국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두 달 전부터 모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신권 지도자와 청년 독신 성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모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부산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신권 지도자와 청년 독신 성인들로 대전 KT연수원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도를 만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는 안식일 모임 이후의 바쁜 일정이나 먼 거리를 달려 온 피곤함 등을 잊은 채 오로지 스코트 장로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먼저 열린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은 전국의 모든 신권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모든 신권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수고와 노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훈련을 시작한 스코트 장로는 모임 내내 쉽고 재미있는 사례를 들면서 신권 지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여러 원리들을 가르쳤다. 스코트 장로는 특히 만장일치의 원리에 대해 강조했다. 스코트 장로는 “우리가 부름을 지지할 때 만장일치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스테이크나 지방부 회장단 모임, 그리고 감독단이나 지부 회장단 모임에서도 만장일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했다. 즉, 초기 교회의 의사결정은 보좌의 의견을 참조하는 가운데 회장이 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형태였지만 성숙된 교회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스코트 장로의 가르침이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의사결정이 늦어질 때도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결

정과 복음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은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야말로 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자 원리입니다.”

스코트 장로는 또한 신권 지도자들이 청소년과 청년 독신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청소년과 청년 독신을 “교회의 미래”라고 표현한 스코트 장로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코트 장로가 말한 우선순위란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 독신들이 처한 선교사업과 군대, 그리고 학업과 결혼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지의 여부였다. 스코트 장로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교사업을 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결혼이라고 말한 스코트 장로는 “선교사업을 다녀오고 나면, 군대나 학업, 그리고 직장보다도 우선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스코트 장로는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도 말씀했다. “한국에는 훌륭한 전통에 많습니다.”라는 말로 운을 댄 스코트 장로는 “그 전통이 훌륭한 것이라면 지키고 따라야 하지만, 만약 교회의 전통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한국의 전통보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다. 우리는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나 필리핀 사람이기 이전에 주님의 왕국 백성이므로 교회의 전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스코트 장로의 설명이었다.

모임에 참석한 신권 지도자들은 스코트 장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코트 장로가 강조하고 훈련한 여러 원리와 지침들을 기록했다. 스코트 장로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들을 여러분의 지역으로 가서 실천하십시오.”라고 말씀하며 훈련을 마쳤다.



스테이크 대회가 끝난 후 대전 스테이크 회장단과 함께 한 스코트 장로와 최윤환 장로.



신권 지도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스코트 장로와 에번즈 회장

“한국의 모든 찬우와 수미를 위해” 4월 20일 특별 청년 독신 성인 모임

이어진 특별 청년 독신 모임에는 전국의 청년 독신뿐 아니라 신권 지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객석을 가득 메운 청년 독신 성인들은 선지자를 향한 무한한 애정을 젊음의 열기에 함께 담아 뜨겁게 내뿜었다. 특히 서울 동 종교 교육원과 서울 서 종교 교육원의 청년 독신 성인들은 잘 준비된 합창을 선보임으로써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더욱 고양시켰다. 스코트 장로의 지시에 따라 첫 연사로 연단에 선 에번즈 회장은 “스코트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귀 기울이십시오.”라고 말씀 한 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을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추천하겠습니다.”라는 따뜻한 말을 덧붙였다.

특유의 잔잔한 미소와 함께 연단에 선 스코트 장로는 “매우 중요하지만 민감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했다. 그리고 뒤이어 대전 스테이크 대회에서도 강조했던 ‘배움의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며 “이 모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받아 적으십시오.”라고 말씀했다. 그런 후 스코트 장로는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와 같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주었다. 스코트 장로는 “선교사업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날기를 거부한 새와 같습니다.”라고 말씀하며 선교사업을 하라는 권고의 말을 재차 강조했다.

선교사업 다음으로 이어진 스코트 장로의 가르침은 데이트였다. 스코트 장로는 “데이트에 대한 한국의 전통이 어떤지는 모르

겠지만 주님의 방법은 압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컴퓨터로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재미있고도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다. 스코트 장로가 그린 그림 속에는 찬우, 동수, 세하, 민하, 그리고 수미 등 친숙한 한국 이름이 등장했고, 각각의 인물이 처한 상황도 청년 독신 성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들이었다. 스코트 장로는 데이트와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이 다섯 명의 형제자매를 예로 들면서 한국의 청년 독신 성인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스코트 장로의 말씀 중 등장한 여러 인물 가운데 찬우와 수미는 교회 안에서 훌륭한 선택을 한 형제자매였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귀환 선교사이고 충실한 회원인 찬우와 화려한 외모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내면이 아름다운 수미는 한국의 모든 청년 독신 성인들이 닮아야 할 모습이었다.

스코트 장로는 이어서 대전에 모인 전국의 모든 ‘찬우’와 ‘수미’를 향해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했다. 또한 스코트 장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을 파멸시키길 원합니다.”라고 염려어린 경고를 보냈다. 스코트 장로는 경고의 일환으로 “사탄은 여러분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원합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육체입니다.”라고 말씀하며 순결의 법을 지키는 것에 강조했다.

특별 청년 독신 성인 모임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열성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여러 가지 질문 중 학업과 결혼 중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를 물었던 한 형제의 질문에 스코트 장로는 “결혼하십시오.”라고 간단하게 대답해 좌중을



모임에 참석한 청년 독신 성인들.



모임이 끝난 후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스코트 장로.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말씀을 마친 스코트 장로는 대전 스테이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청년 독신 성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따뜻한 사랑을 표현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4월 24일 서울 경인지역 특별 노년의 모임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도 스코트 장로의 바쁜 일정은 변함이 없었다. 21일에는 대전 선교부 대회에 참석했고, 22일부터 23일까지는 북아시아 지역의 모든 선교부 회장과 함께 ‘북아시아 지역 선교부 회장 세미나’를 했다. 또한 24일에는 서울 선교부와 서울 서 선교부 대회를 감리했다. 스코트 장로는 모임 중간에도 쉬는 법이 없었다. 단 몇 분의 여유라도 생기면 다음 모임을 준비하고 회원들을 접견하는 등 주님의 부지런한 사도로서의 열정과 신앙을 모범으로 보였다.

4월 24일 저녁에 열린 서울 경인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노년의 모임에서도 스코트 장로의 신앙과 열의, 그리고 주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은 빛을 발했다. 서초 구민 회관에서 열린 특별 노년의 모임은 한 시간 전부터 객석이 차기 시작하더니 모임 몇 분 전에는 자리에 앉지 못한 회원들이 양 옆으로 늘어설 정도로 그 열기가 대단했다. 평일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가득 메운 회원들은 연사들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으며 경청했다. 특히 이날 모임은 온누리 합창단이 준비한 합창으로 그 영적인 느낌이 더했다. 스코트 장로의 말씀 전 연단에 오른 최윤희 장로는 “교회의 선지자와 지도자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성하게 되는데 더욱 더 번성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다. 또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은 “특히 청소년과 교회에 처음 온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연사였던 스코트 장로는 한국말로 인사를 끝낸 후 초등회 어린이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향해 환한 웃음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스코트 장로는 물속에 가리앉는 돌멩이와 물위에 뜨는 코르크 마개를 비교하며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 속으로 가리앉지 말고 코르크 마개처럼 뜰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말씀했다.

이날 모임에서 스코트 장로가 특히 강조한 것은 가정이었다.

스코트 장로는 특별히 형제들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 ‘경적’을 올리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가족을 학대하는 사람에게서 어떠한 행복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또한 자매들에게는 “가정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머니”라고 가르치며 큰 인내를 가진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리고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그것은 뿌리 깊게 자리 잡습니다.”라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스코트 장로는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생활에 적용하고, 성전에 갈 자격을 갖추겠다고 결심하라는 권고를 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라는 간증을 전했다.

스코트 장로가 한국의 성도들을 위해 머물렀던 일주일 동안 이 땅에는 주님의 축복이 가득했다. 또한 스코트 장로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한국의 성도들은 한층 더 성숙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코트 장로가 강조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었다. ■



스코트 장로는 모임이 끝난 후 항상 회원들과 악수와 환담을 나누었다.

지역 단신 스콧 장로 방한 특집 기사로 실리지 못한 지역 단신은 웹사이트 www.lds.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스테이크 <백봉옥 기자>

스테이크 대회 - 지난 2008년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북 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의 감리로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에번즈 회장은 신권 역원 모임을 통해 와드를 강화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식일 모임에서는 특별히 준비된 청소년들의 합창을 들은 에번즈 회장이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주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영을 좀 더 느끼고, 선교사업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도록 축복하고 격려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5명



이동희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정유나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템플 스퀘어



이태일 장로
서울 스테이크
서대문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조민지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
템플 스퀘어



정재진 장로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뉴욕 남 선교부

리아호나 온라인 구독 신청

교회의 한글 웹사이트인 www.lds.or.kr에서 온라인으로 리아호나 및 교회 잡지를 구독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은 물론이고 각 와드나 지부의 도서 책임자도 온라인을 통해 교회 잡지 구독 신청을 할 수 있고, 개별 주문과 단체 주문 모두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www.lds.or.kr 메인 화면에서 좌측의 <리아호나> 메뉴를 누르면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간다.



2. 화면 좌측 상단의 <리아호나 온라인 구독 신청>을 누르면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간다.



3. <개별주문하기>나 <단체주문하기> 등을 누른 후, 다음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구 스테이크
경산 지부 회장: 홍성남(전임: 정재형)